

#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양상 고찰

## Study on the Condition of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in North Korea

김미진(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 차 례

1. 북한의 교육체계
2. 정치사상교육의 운영 실태

3.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사상교육
4. 북한의 정치사상교육과 미래 전망

## 1. 북한의 교육체계

북한의 교육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도입하고 사회주의를 교육시키는데 주력을 다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또한 공산주의적 인간육성, 주체사상, 집단주의,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교육이념으로 삼는 것도 이러한 점에 기초한다. 북한 교육은 크게 두 가지의 문건을 통해 교육의 목적과 이념이 세워졌다. 첫 번째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 교육에 대한 테제」이다.

먼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된 교육은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란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적

극적으로 현신할 수 있는 인간을 의미한다.<sup>1)</sup> 이러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기 위한 북한은 집단의 학습 활동을 하며 협동농장 방문이나 생산활동과 같은 실제 생활과 밀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더불어 ‘사회주의 교육의 지도사상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며,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는 것’<sup>2)</sup>이라고 천명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교육을 진행한다.

1977년 9월 5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대한 테제」는 북한 교육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 담화문의 핵심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으로는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 이 세 가지가 있다. 정치사상교육은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도덕적품모를 갖춘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교육은 “인류가 달성한 선진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며, “청소년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그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체육교육의 사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3)</sup>

또한 이 담화에서는 북한의 교육제도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라고 주장하며, ‘전반적의무교육’과 ‘전반적무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sup>4)</sup>을 제도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은 수령인 김일성의 담화에서부터 출발해 교육의 체계를 구축했다.

1)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1997, 30~33쪽 참고.

2) 위의 책, 34쪽.

3)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동경: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77, 3~27쪽 참고.

4) 위의 책, 42~55쪽 참고.

한편 북한 교육 제도의 변천과정은 크게 사회주의 교육 도입 시기(1945~1950), 전쟁 후 복구 시기(1950~1959), 기술교육 강조 시기(1959~1966), 김일성 유일사상 확립 시기(1966~1972),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시기(1972~1985),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기(1985~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5)</sup> 특히 ‘김일성 유일사상 확립 시기’인 1966년 이후에는 김일성 유일체제 정착의 일환으로 교육적 측면에서는 우상화 교육이 시행되었는데,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사상교육의 일종인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과목이 신설되었으며 김일성의 혁명 전통을 깨우치고 계승하기 위한 교과의 수업이 이루어졌다. 북한의 교육 사업의 방침으로 중시되고 있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학제를 아래와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

박사원 (박사) (준박사)		연구원	
대학 (4~6)	사범대학 (4)	교원대학 (3)	고등전문학교 (3)
고등중학교(중학교) (6)			
인민학교(소학교) (4)			
유치원 높은반 (1) 낮은반 (1)			

[표 1] 북한의 학제<sup>6)</sup>

[표 1]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의 학제는 2003년 이후 인민학교가 소학교로, 고등중학교가 중학교로 명칭을 변경<sup>7)</sup>하였으며, 2012년 9월에 열린

5) 한만길, 앞의 책, 42쪽 참고.

6) 위의 책, 54쪽 참고.

7) 이후 본고에서는 인민학교를 ‘소학교’,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표기함을 밝혀둔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이 결정되어 2013년부터 다시 한 번 수정될 예정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법령은 김정은 체제를 맞이한 북한이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가장 정당하고 우월한 교육’<sup>8)</sup>이라고 밝히며 교육부분에서부터 변혁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김일성 - 김정일 시대의 ‘숭고한 후대교육사상과 정력적인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sup>9)</sup>이라고 칭송하며 이 성과를 받아들이어 앞으로의 주체혁명과 선군혁명의 위업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새 시대의 의지가 담긴 부분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1972년부터 이어진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우선 교육을 받은 대상은 5살부터 17살까지로, 교육을 마치는 연령이 기존의 16살에서 한 살 늘어났다. 그리고 ‘1년제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 ‘3년제고급중학교’로 세분화하는데 이전의 4년제소학교를 5년제 학교로 전환하는 작업은 2014년부터, 6년제이던 중학교를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은 2013년부터 진행한다. 또한 교육과정안이나 교수요강은 2013년부터 배급되는데, 이렇게 해서 북한의 새로운 교육정책인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sup>10)</sup>

본고에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주의교육의 세 가지 내용 가운데 인민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고 혁명전통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09.26. 2면 참고.

9) 같은 면 참고.

10) 같은 면 참고.

치사상교육'을 주요 논의로 삼을 것이다. 특히 의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인 소학교(4년)부터 중학교(6년)의 교육 과정 중 정치사상교육 과목의 운영 실태와 문학 교과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사상교육 현황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또한 연구 진행의 시기상 본고에서 다루게 될 북한 교육은 2012년까지로 한정함을 밝힌다.

## 2. 정치사상교육의 운영 실태

북한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것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는 한마디로 '유일체제'이며 절대권력자인 수령을 중심으로 전체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문화적으로 광범한 '개인숭배현상'을 동반하는데, 이를 위해 교육기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역사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sup>11)</sup>

북한 어린이들에게 있어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은 탁아소에 입소하기 이전의 가정교육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며 탁아소에 입소한 후부터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혁명 수업을 받게 된다.

어린이반부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간식을 나누어준다. 점심에 밥을 먹을 때는 장면 벽에 걸려 있는 초상화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라고 보육원이 말하면 아이들은 보육원을 따라서 인사를 한 다음 간식이나 밥을 먹어야 한다며 김일성 숭배사상을 인식시킨다.

(중략)

11)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211쪽 참고.

어린이반 시기가 끝난 다음 2~3세의 교양반 시기와 유치원 가기 전인 3~4세의 준비반 시기를 거치게 된다. 이 시기부터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교양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충실성 교양으로 일관되어 있다. 김일성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김일성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등등 단순한 우상화 교양이 들어간다.

(중략)

1980년대 중반기부터 유치원에도 김정일 어린 시절 수업이 더 보충되었다. 이 과목은 말 그대로 김정일이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예지,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 품성, 뛰어난 전략을 지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후계자의 귀감이라고 높이 찬양하면서 어린이들을 교양하는 충실성 교양 과목이다. (중략) 김정일의 어린 시절 이야기 과목은 김일성의 어린 시절 이야기 과목보다 늦게 나왔다. 이 한가지 사실을 놓고 봐도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사업은 80년대 중반기부터 유치원에도 일반화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금주, 「실 틈 없는 유치원 교육과정」<sup>12)</sup>

북한의 어린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김일성 개인숭배사상은 유치원 높은반부터 시작되는 의무교육 단계에 이르러 교과목과 교과서를 통해 공식적이고 또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본격적인 김일성 우상화 교육은 1983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확고하게 정착되었으며,<sup>13)</sup> 소학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중학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와 같은 과목이 개설되어 혁명전통과 관련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1974년에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공인된 김정일은 1980년부터 후계자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 캠페

12) 한만길 엮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북녘에서 살다 온 16인의 생생한 교육체험기』, 우리교육, 1999, 29~35쪽.

13) 한만길, 앞의 책, 1997, 149쪽.

페인도 가속화되었는데, 이른바 ‘혁명적 가문과 비범한 천재성을 부각’시키며 ‘백두산 밀영 탄생을 공식화’하고 ‘구호나무문헌 학습’이라는 활동을 전개한다.<sup>14)</sup>

이렇게 시작된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1986년의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러 김정일에 대한 혁명전통 과목을 정규과목에 포함시키기에 이른다. 김일성의 과목과 마찬가지로 소학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중학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라는 이름의 과목이 교육되고 있다.

한편,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더불어 ‘백두산3대장군’으로 지칭되는 김정숙에 관한 우상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전술되었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과목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인민학교 과정이었을 때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이라는 이름으로 학년별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수업시간이 배정되었다. 하지만 2003년 인민학교의 이름이 소학교로 바뀌면서 교과목명칭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로 바뀌었으며, 학년별 주당 한 시간씩 주어지던 수업시간이 4학년에 한해서만 주당 한 시간씩으로 수업시간이 줄어들었다. 대신 ‘사회주의 도덕’이 소학교 1학년과 2학년 기준으로 한 시간씩 더 늘어 있다.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김정숙을 지칭하는 수식어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에서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바뀌었을 뿐 주당 주어진 수업시간에는 변동이 없다. 이 과목들의 교과서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일생과 활동 모습을 전기의 형태로 서술하고 사진과 조선회 등도 활용한다. 다음의 [표 2]는 2012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행해지는 북한 학생들의 교육 과정을 도표화한 것이다.

14) 이종석, 앞의 책, 516~517쪽 참고.

번호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1	1	1	2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				1
4	사회주의 도덕	2	2	1	1
5	국어	6	6	7	8
6	수학	6	6	6	6
7	자연	2	2	2	2
8	위생				1
9	체육	2	2	2	2
10	음악	2	2	2	2
11	도화공작	2	2	1	1
12	영어			1	1
13	컴퓨터			1	1

[표 2] 북한 소학교 교육과정<sup>15)</sup>

6세부터 시작되는 소학교 과정에서는 우선 백두산3대장군의 우상화 과목이 교육과정에 처음 편성되어 학생으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우상화 교육과 정치사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소학교는 비교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때문에 우상화 과목 역시 백두산 3대장군의 ‘어린시절’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혁명을 위한 비범한 예지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소학교에서 중학교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치사상교육은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혁명 전통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목으로 세분화된다.

1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2012, 189쪽.



번호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	2	3	4	5	6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력사				2	2	2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2	2	2
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력사				1		
6	현행당정책				1주	1주	1주
7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8	국어	5	5	4			
9	문학				4	3	2
10	한문	2	2	1	1	1	1
11	외국어	4	3	3	3	3	3
12	력사	1	1	2	2	2	2
13	지리	2	2	2	2	2	
14	수학	7	7	6	6	6	6
15	물리		2	3	4	4	4
16	화학			2	3	3	4
17	생물		2	2	2	3	3
18	체육	2	2	2	1	1	1
19	음악	1	1	1	1	1	1
20	미술	1	1	1			
21	제도				1	1	
22	컴퓨터				2	2	2
23	실습(남·녀)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표 3] 북한 중학교 교육과정<sup>16)</sup>

소학교 과정에서는 백두산 3대장군의 어린시절을 배웠다면, 중학교에서는 이들 3대 장군의 혁명활동과 더불어 혁명역사에 대해 배운다. 그리

16) 앞의 책, 191쪽.

고 고학년에서는 ‘현행당정책’을 학년당 1주일동안 수업하도록 만들어서 정치사상교육을 보다 강화하려는 측면을 볼 수 있다. 또한 국어과 교과목은 저학년에서는 국어를, 고학년에서는 문학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외국어 과목에 대한 비중도 높아져 중학교 전학년에 걸쳐 외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데, 영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부분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영어와 함께 컴퓨터 조기교육의 실시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소학교 3학년 과정부터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주당 2시간으로 늘려서 교육한다.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들뿐 아니라 북한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모든 과목들에서 이들의 정치사상교육은 자연스럽게 교육되는데, 특히 국어와 공산주의도덕과 같은 과목에서 비중이 높게 다루어진다. 예를 들면, 고등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에 있는 단원 중에서 김일성 우상화 단원은 16개(21.3%), 김정일 우상화 단원은 9개(12.0%), 김일성가계 선전 단원이 7개(9.3%)로서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 내용이 전체의 42.6%를 차지하고 있다.<sup>17)</sup>

구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교과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경대초가집에서 탄생하시어 / 타도제국주의동맹 / 새날소년동맹을 무으시고 / 길림육문중학교에 자리를 잡이시고 / 길림감옥에서 / 카륜회가 준비되던 나날에 / 위험한 고비를 넘기시며 /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 돈 한푼 받지 않는 학교를 세워 주시고 / 《머슴군》으로 가장하시고 / 반일인민유격대창건 / 남만으로 가시는 길에 있는 이야기 / 온갖 슬픔을 이겨 내시며 / 인민의

17) 한만길, 앞의 책, 184쪽 참고.

새 세상 / 왕재산으로 가시는 길에서 / 소왕청유격구방어전투/ 죽음에서 구원  
 된 사려장 / 로야령과 더불어 길이 전할 이야기 / 북만원정의 길에서 / 태워 버  
 리신 《민생단》문서보따리 / 마안산아동단원들에게 돌려 주신 사랑 / 녀성중대  
 / 만강마을에서의 연극공연 / 《소를 임자에게 돌려 보냅시다》/ 위대한 수령님  
 의 뜻을 받들고 / 보천보전투 / 간삼봉전투 / 소년중대에 대한 이야기 /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첫째가는 의무<sup>18)</sup>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이 과목에서는 주로 김일성의 탄생과 항일혁  
 명운동 당시까지의 혁명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김일성의 탄생 일화부터  
 김일성의 활동을 전기의 형태로 기술해보이고 있는데, 전기의 형태를 띠  
 고 있지만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교과목이다보니 어렸  
 을때부터 비범한 예지로 인자한 인품을 가진 영웅의 모습으로 혁명 활동  
 을 해나갔다는 식의 신화적 서술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과목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혁명력사’ 과목으로 대체되는  
 데, 저학년에서 배운 ‘혁명활동’의 내용이 김일성의 일생과 함께 혁명적  
 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혁명력사’ 과목에서는 김일성의 혁명  
 활동이 시기 구분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교육된다. 구체적으  
 로 중학교 4학년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교과서의 구  
 성을 살펴보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혁명에 나아갈 길 개척

[주체1(1912.4)—주체20(1931.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 / 혁명활동 개  
 시,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 길림에서의 청년운동 / 주체사상 창시 / 카륜회  
 의 / 항일무장투쟁 준비

18) 최동철 · 장리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중학교 1』, 평양:교육도서출판사, 2005, 차  
 례쪽.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

[주체20(1931.12)—주체34(1945.8)]

항일무장 조직전개 / 항일무장투쟁의 일대 양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새 조국건설을 조직령도**

[주체34(1945.8)—주체39(1950.6)]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 제시 / 주체의 혁명적당 창건 /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결속 / 인민민주주의정권의 수립과 민주개혁 / 새 조국건설을 위  
한 대중운동 / 사회주의정권의 수립과 첫 인민경제계획 수행 / 정규적혁명무  
력으로 강화발전 /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 / 4월남북련석회의 /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창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조직령도**

[주체39(1950.6)—주체42(1953.7)]

모든것을 전쟁승리로 조직동원 / 남반부 넓은 지역의 해방 / 새로운 반공  
격 /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 전시 당의 강화 / 전시생산과 전후복구건설 준비 /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조직  
령도**

[주체42(1953.7)—주체49(1960.12)]

전후복구건설 / 사회주의협동화 / 주체확립에서의 결정적전환 /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 중파도당 폭로분쇄 /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 / 혁명전통교양  
과 사회주의교양 /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창조 / 해외동포운동의 발전<sup>19)</sup>

---

19) 강홍수 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중학교 4급, 평양:교육도서출판사, 2003, 차례쪽.

위에서와 같이 ‘혁명력사’ 과목에서도 김일성의 탄생, 항일무장투쟁, 새 조국건설, 조국해방전쟁 등 김일성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앞선 ‘혁명활동’ 과목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과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혁명활동’ 과목에 비해 ‘혁명력사’ 과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주체 1년’부터 시작되는 북한식 역사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서기와 함께 사용되는 북한식 연호인 ‘주체 연호’는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삼은 것으로,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의 역사를 ‘혁명전통’으로 만들어 계승하고 그의 사상을 영원히 유지시키며 또한 ‘김일성을 하나의 신으로 창조해 내고, 그의 일생과 함께 북한사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sup>20)</sup>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체제의 전통성 확보와 유지를 위해 ‘혁명전통’을 그들의 역사로 내세웠으며, 수령인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혁명전통역사의 원년으로 삼아 ‘주체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김일성 사후 3년 즉, 이른바 유훈통치가 끝나는 시점은 1997년 7월에 선포된 것인데 수령 사망 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혁명전통의 역사를 계승한 것이다.<sup>21)</sup>

소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진행되는 10년에 걸쳐 학생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 형태는 유일사상체제의 확립을 위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해 맹목적 충성으로 이끌기 위한 강제적인 주입식 교육이며 이것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저하시키고 학습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20)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66쪽 참고.

21) 1997년 7월 8일 김일성의 기일에 삼년상이 끝났다는 선언과 함께,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 연호를 사용할 것과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한다는 것이 선언되었다. 와다 하루키, 『북조선』, 돌베개, 2009, 270쪽 참고.

### 3.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사상교육

김일성, 김정일 과목의 교재인 교과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숙이 이룩한 혁명 역사를 서술해 놓은 전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문학 교과서에서는 “4학년은 고대중세문학에서 계몽기 문학, 해방 전 문학의 단계까지 소개되고 5학년은 해방 후 문학에서 전후복구 건설기의 문학, 천리마 시대의 문학까지, 6학년은 주체문학의 대전성기가 주요 대상”이 된다.<sup>22)</sup> 또한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창작했다는 작품들과 ‘수령형상문학’으로 대표되는 작품들의 해제를 통해 수령형상교육이 이뤄진다.

북한 중학교의 “국어 과목의 교과명은 국어 문학으로 1~6학년까지 동일하지만, 국어 과목의 교육을 위한 교과서명은 중학교 1~3학년용은 ‘국어’이고, 4~6학년용은 ‘국어문학’으로 학년에 따라 다르”<sup>23)</sup>게 나뉜다. 하지만 1996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국어 문학’이라는 과목명이 ‘문학’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교육과정에서도 ‘문학’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어 문학’과 ‘문학’의 교과서명을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문학’이라고 표기 할 것이다.

문학 교과는 앞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인데, 중학교에서는 문학 교과에 대한 교육 목적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며 국어과 과목의 학습과 교수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고등중학교 《국어문학》과목교육의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주체적언어문예사상,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언어문예방침으로 학생들을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언어와 문학에 대한 일반기초지식과 실천적기능을 키워주고 혁명적정서와 사고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

22) 임옥규, 「북한 교과서 개편에 따른 문학교육 양상」, 『한국문화기술』 제13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2, 18쪽.

23) 이인제,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143쪽.

는 지도자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있다.<sup>24)</sup>

또한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공산주의 교양의 힘 있는 수단”이라고 하면서, “문학 교수를 통한 공산주의 교양은 직접 공산주의자들의 형상을 보여 주는 작품은 물론, 우리 시대와는 아주 다른 낡은 시대의 진보적 인간들을 보여 주는 과거 작품에서도 가능하다”<sup>25)</sup>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문학 교과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학]—중학교 4학년<sup>26)</sup>**

**〈고대중세문학〉**

고대가요와 고대중세설화문학 : 공후인 / 주몽설화

중세시가문학 : 정읍사 / 청산별곡 / 시조 / 관동별곡 / 강강수월래 / 방주의 노래 / 적성촌의 오막살이

중세소설문학 : 임진록 / 재판받는 쥐 / 홍길동전 / 춘향전 / 랑만전 / 채동감별곡

**〈계몽기문학〉**

상봉유사 / 현미경

**〈해방전 진보적문학〉**

병어리 삼룡이 / 초혼 / 탈출기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락동강 / 산 제비 / 고향 / 인간문제 / 진달래 / 황금산

**〈항일혁명문학〉**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과 열렬한 녀성혁명투사 강반석어머니의

24)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편, 『국어문학 교수요강(고등중학교 4~6학년용)』, 평양: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84, 3쪽.

25) 학우서방 편, 『문학교수법』, 동경:학우서방, 1963, 114쪽 참고.

26) 『문학(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교육도서출판사, 2004, 차례쪽.

혁명적시가문학 : 남산의 푸른 소나무 /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 만경대에  
봄이 와도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작된 혁명적문학예술 : 항일혁명문학과 그 특  
징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친필활동 /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  
향가》 /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 / 자장가 / 조선의 별 / 적기가 / 자유  
가

### 〈외국문학〉

일리아스 / 삼국연의 / 베니스의 상인 / 로빈슨 크루소우

### 〔문학〕—중학교 5학년<sup>27)</sup>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불멸의 친필활동〉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 /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 /  
불후의 고전적명작 《제일강산》

#### 〈새 조국건설시기의 문학〉

백두산 / 땅 / 농촌위원회회의 밤 / 로동일가 / 문학작품의 주제와 사상

####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문학〉

조선은 싸운다 / 불 타는 섬 / 결전의 길로 / 싸우는 마을사람들 / 바다가 보  
인다 / 문학작품의 종자

#### 〈전후복구건설시기의 문학〉

새들은 숲으로 간다 / 빛나는 전망 / 시련속에서 / 평남관개시초 / 석개울의  
새봄

#### 〈천리마시대의 문학〉

력사의 자취 / 장군님의 어머니 / 문학작품의 언어 / 전사들 / 길동무들 / 붉  
은 선동원 / 문학작품의 구성 /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 / 대하는 흐른다 / 별  
거벗은 아메리카

27) 김성우, 『문학(중학교 제5학년용)』, 평양:교육도서출판사, 2003, 차례쪽.



〈외국문학〉

레 미제라블 / 압록강가에서 / 우제니 그랑데 / 축복

[문학]—중학교 6학년<sup>28)</sup>

〈주체문학의 대전성기〉

1932년

〈문학은 인간학〉

고요 / 나의 조국 / 푸른 하늘 / 충성의 한길에서 / 당의 참된 딸 / 나는 영원  
히 그대의 아들 / 자기 위치 앞으로 / 빛나는 아침 /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 빈터우에서

〈성격과 전형〉

어머니 / 승리의 기치따라 /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 갑오농민전쟁 /  
창작방법과 사조 /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 민족과 운명 / 높이 들자 불  
은기 /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문학작품의 종류와 형태〉

〈외국문학〉

소베트려권 / 어머니 / 청춘의 노래 /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문학 교과서에 소개된 외국문학의 특징은 주로 러시아, 중국, 그루지아  
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작품이거나 자본주의와 부르조아 사회에 대  
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작품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작가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중학교 5학년에 수록된 『레 미제라블』에 관한 해제를 보면, “한생을 외  
롭게 보내고 세상을 떠나는 장발장, 딸애를 키우기 위하여 천신만고하며  
애 쓰다가 비참하게 죽는 팡띠느, 어린 나이에 무서운 고역과 천대에 시

28) 김성우·오정환 외, 『문학(고등학교 제6학년용)』, 평양:교육도서출판사, 2001, 차례쪽.

달리는 꼬제트, 거리를 헤메는 나 어린 방랑소년 가브로슈 등의 모습을 통해 부르조아 사회는 인민대중에게는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sup>29)</sup> 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장치들을 문학 교과목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로신의 작품 《축복》을 수록하였고, 중학교 6학년 문학 교과서에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소개하며 ‘수령이 정확한 혁명리론과 투쟁방침을 내놓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사회주의혁명에로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게 된 것’<sup>30)</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문학 교과서를 통해 소개되는 외국 작품들은 주로 ‘사회주의’와 ‘혁명을 위한 투쟁’과 같은 모습을 지향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령형상문학작품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령형상작품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5학년 교과서에 조기 천의 『백두산』과 리종순의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가, 중학교 6학년에 『불멸의 력사』 총서 가운데 『1932년』,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 리종렬의 『고요』 등과 같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불멸의 력사』 총서 가운데 『1932년』은 총서의 출발이 되는 작품으로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한 1932년을 소재로 하고 있어 ‘혁명전통’을 강조하기에 적절한 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는 ‘〈성황당〉식 혁명연극’ 가운데 ‘수령형상의 첫 작품’<sup>31)</sup>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며, 리종렬의 단편소설 「고요」는 1980년 대를 대표하는 수령형상작품으로 현지도에 앞장서는 수령과 그런 수령을 보필하고 한 철도원에게 인정을 베푸는 인자한 지도자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처럼 앞서 언급된 작품들은 북한의 대표적인 수령형상문학작

29) 김성우, 위의 책, 196쪽.

30) 김성우·오정환 외, 앞의 책, 152쪽.

31) 류만, 「수령형상장조에 관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을 폭넓고 깊이있게 구현한 혁명적대작」, 『조선예술』 1993년 제8호, 평양:문예종합출판사, 1993, 18쪽.

품으로서 가치를 지닌 작품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 다른 작품들에 비해 보다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수령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며, 문학의 지상 과업이라고 말하고 있다.<sup>32)</sup> 북한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교양시키고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과정 가운데 문학 교과목은 수령형상문학 작품과 김일성-김정일의 '불멸의 친필활동'과 같은 작품들을 읽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수령에 대한 우상화는 물론 문학예술의 영도자로서 수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 4. 북한의 혁명교육과 미래 전망

북한의 교육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sup>33)</sup> 사회주의 이념을 고취시키고 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시키기 위한 활동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인민을 교양시키는 목적을 가진 교육에서도 빠질 수 없이 등장하는데, 북한의 혁명교육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수령형상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고에서 살펴본 북한 교육의 특징은 크게 김일성, 김정일 과목의 교육과 11년제 의무교육의 전반적 시행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김일성의 유일체제를 건고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식 혁명교육을 추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김일성에 대한 혁명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소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 각각 어린시절과 혁명활동·혁명역사 과목을

32)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26쪽 참고.

33) 한만길, 앞의 책, 1997, 29쪽.

개설해 가르쳤으며 1986년에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김정일에 대한 과목도 정규과목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혁명수업은 북한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무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혁명수업은 김일성, 김정일 과목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행해지는데, 1984년에 발행된 『국어문학 교수요강(고등학교 4~6학년용)』<sup>34)</sup>을 살펴보면 해당과목의 교육목표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주체적언어문예사상,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언어문예방침으로 학생들을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언어와 문학에 대한 일반기초지식과 실천적기능을 키워주고 혁명적정서와 사고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운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북한의 문학교육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가르침을 본받아 혁명전통을 이어나가고, 북한교육의 최종 목표인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방법으로 수령형상문학을 수록해 학습하도록 했으며, 외국작품 가운데서는 사회주의를 옹호하거나 프롤레타리아 문학 작가의 작품들을 주로 소개했다.

북한의 교육이 혁명전통을 이어나가고 체제 유지를 위한 혁명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며 그와 더불어 혁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김일성, 김정일 과목과 같은 수령형상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해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저해하기 쉽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일대기와 혁명 활동, 역사를 학생들은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획일적인 수령형상 관련 수업을 반복적·주입식으로 무려 11년에 걸쳐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상위단계의 학교에 진학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수령형상과 우상화 수업은 끊임없이 받게 된다.

34)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편, 앞의 책.

이러한 교육 진행은 향후 통일된 한반도에 극심한 교육 이질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으로 삶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유일한 가치라 교육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와, 주체사상의 견지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북한의 역사 교육에 있어서도 통일 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sup>35)</sup>

체제를 견고히 하고 수령의 위치를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과목은, 세계화 교육 체계 속에서는 퇴보하게 될 것이며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

35) 박덕규, 「북한의 교육 현실과 남북한의 교육 이질화 극복 방안」, 『한국문예창작』 제2권 제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3, 235쪽 참고.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강홍수 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중학교 4』, 평양:교육도서출판사, 2003.
-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편, 『국어문학 교수요강(고등중학교 4~6학년용)』, 평양: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84.
- 김성우, 『문학(중학교 제5학년용)』, 평양:교육도서출판사, 2003.
- 김성우, 오성환 외, 『문학(고등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교육도서출판사, 2001.
-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동경: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77.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류 만,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을 폭넓고 깊이있게 구현한 혁명적대작」, 『조선예술』 1993년 제8호, 평양:문예종합출판사, 1993.
- 최동철·장리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소학교 1』, 평양:교육도서출판사, 2001.
- 학우서방 편, 『문학교수법』, 동경:학우서방, 1963.
- 『문학(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교육도서출판사, 200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09.26.

### 국내자료

- 박덕규, 「북한의 교육 현실과 남북한의 교육 이질화 극복 방안」, 『한국문예창작』 제2권 제2호, 2003.
- 와다 하루키, 서동만 역, 『북조선-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9.
- 이인제,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임옥규, 「북한 교과서 개편에 따른 문학교육 양상」, 『한국문화기술』 제13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2. 06.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2012.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1997.

한만길 엮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북녘에서 살다 온 16인의 생생한 교육체험기』, 우리교육, 1999.

Abstract

## Study on the Condition of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in North Korea

Kim, Mi Jin

North Korean education introduces a communistic ideology that is based on Marxism, Leninism and the Juche Idea of Kim Il-Sung and emphasizes the main focus of educating North Koreans about socialism.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development of communistic-minded persons, Juche Idea, collectivism and the integ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as its ideals of education is also based on such aspect. The purpose and ideals of North Korean education has been largely established by two official documents. The first is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nd the second is the Thesis on Socialist Education.

Among the three main topics concerning socialist education as presented in the Thesis on Socialist Education, this study mainly discusses about the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which is used as an education method to secure and maintain the legitimacy of revolutionary tradition and cultivate North Koreans as communistic revolutionis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resent education conditions in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classes for elementary schools (4 years) and middle schools (6 years) in



which compulsory education is required and present conditions of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offered in literature texts.

North Korean education is mainly based on revolutionary education for the maintenance of the regime and continuance of the revolutionary tradition. In addition, leader figure classes such as Kim Il-Sung and Kim Jong-Il classes are adopted as required subjects in order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revolution. Such educational system will easily impede upon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of North Korean students. North Korean students study uniform leader figure related classes such as the life stories, revolutionist achievements and history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for as long as eleven years based on a repetitive and forced method of studying without being guaranteed any autonomy as students. Of course, North Korean students continue to learn such leader figure classes and idolization classes even after continuing their education beyond middle school.

Such educational direction may result in a severe educational discrepancy on the Korean Peninsula if the two Koreas unite in the future. Such result can be expected due to the issue of how individuals that are familiar with creating values in life based on their own efforts and responsibilities and acknowledging diverse values can accept those who are educated to believe that the Juche Idea is the only value to be practiced, and the likelihood for a considerable amount of confusion after unification with respect to education on North Korean history which separates the pre-unification period from a perspective based on the Juche Idea. Although Kim Il-Sung and Kim Jong-Il classes have been long implemented as a measure to strengthe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reinforce the position of the North Korean leader, it will regress in a globalized education system

and it will be the foremost issue to be resolved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unification.

주제어 : 북한교육(North Korean Education), 정치사상교육(Political Ideology Education), 수령형상(Leader Figure), 사회주의 교육(Socialist Education)

논문 접수일 2012. 11. 02.  
논문 심사일 2012. 11. 23.  
게재 확정일 2012. 12. 10.